



나는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다

천상중 3-3 이하람

이 글을 시작하기 전, 나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

“당신은 편지를 얼마나 써보았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쓰거나, 많이 쓰지 않거나. 나는 둘 중 전자에 속한다. 생일과 기념일에 관해, 위로를 위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 나는 살면서 수도 없이 편지지에 글을 써왔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 중에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다.

“당신은 편지가 지닌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단면적으로 이 질문을 바라보았을 때는 계기가 힘이고, 동기고, 전하고자 하는 바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자는 말인가. 나의 대답을 선두로 지금부터 당신과 진중하게 이야기해보려 한다.

“당신은 편지가 지닌 힘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누군가는 사랑과 애정을, 누군가는 행복과 기쁨을, 누군가는 슬픔과 애도를, 혹은 분노와 울분을 표할 것이다. 나 또한 주로 편지에는 기쁜 일을 담는다. 얼마 전에도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준 기

억이 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질을 담고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 중학교의 끝을 맞이하고 있어서 그런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 작년부터 연락해 온 나의 친구는 사는 지역이 멀어 몸이 참 동떨어진 사이다. 그래서 택배를 보내지 않는 이상 핸드폰 메시지로 장문의 편지를 주고받고 했다. 하루는 유독 기가 죽어 있는 친구가 눈에 밟혔다. 말을 꺼내면 아니라면서 혼자 끔끔 힘들어할 것 같아 장문부터 써 내렸다.

‘난 요즘 네가 눈치를 보는 게 너무 잘 보여. 근데 있잖아, 나는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내게 말해줄 때면 신난 모습이 보여 덩달아 웃게 돼.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좋아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마음껏 사랑했으면 좋겠어. 모두가 밀더라도 나만은 너의 편이 되어 널 안아줄게.’

확신이 어린 편지는 정답이 맞았다. 친구는 고맙다며 너 때문에 울겠다고 농담도 던졌다. 그렇게 이 편지가 전해진 지 2개월이 된 지금, 친구는 남들의 눈치가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랑하고 애정했다. 슬픔을 어루만졌던 나의 편지가 친구에게는 힘과 원동력이 된 것이다. 단순한 축하로 생긴 행복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힘이 존재했다. 슬픔이라는 원통한 감정이 행복으로 바뀌는 역학적인 전환 말이다. 그때부터 나는 편지에 힘이 존재한다고 강경하게 믿게 된 것이다. 겨우 글자가 사람을 바꾼 것을 몸소 느꼈으니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이쯤 되니 당신도 내게 궁금한 점이 생길 것이다.

“편지를 받았을 때에 ‘힘’은 어떠한가?”



나는 일단 편지를 좋아한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편지들을 모아왔다. 언제쯤 가득 찰까 생각하던 시간이 훌쩍 가고, 서랍장에는 수두룩하게 쌓였다. 평소에는 딱히 느끼지 못했는데 청소를 하다가 문득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 흘린 듯 편지들을 붙잡았다. 지금은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옛 친구들의 편지가 배곡했다. 눈으로 곱씹어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추억이 깃든 편지가 내 마음을 강타한 것이다. 그때가 그리운 것은 아닌데 무언가 내게 속삭이며 어루만져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당시에는 당연히 받았던 생일 편지가 왜 이리도 슬픈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인간의 시계가 존재하여 내가 지금 나이가 된 것처럼 편지에도 시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 시계가 움직여 기쁨이 슬픔과 그리움으로 다시금 탄생한 것일까? 물음표가 가득임에도 편지의 내용은 그때 그대로, 야속하게도 내게 답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 당신도 편지의 힘이 무궁무진하고 강력한지 이제야 조금씩 꼬덕일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편지가 단순히 마음 하나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신비롭다고 말할 거다.

앞서 말했지 않는가, 나는 편지를 좋아한다고.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 기분이 한몫을 했다. 그리고 앞 내용으로 편지의 재탄생과 시간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누군가에게도 나의 글이 설렘이고 호기심이진 않을까 괜히 마음을 뒤척여본다. 모든 작가들의 마음은 동일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이제야 들기 시작한다.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 할지라도 작가는 분명하게 말하고자 한다. 그것이 어찌면 긴 편지가 아닐까? 물론 정의는 다르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

면 마음과 생각을 우려내어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이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내가 편지와 책 모두를 아꼈던 것 같다. 그 문장에 희미하게 느껴지는 향으로 그때의 온도, 시간, 관계를 추측할 수가 있다. 범인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작가는 범인, 당신과 내가 탐정이 되어 흔적을 찾으면 된다. 작가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서 찾아내면 된다. 편지에 무슨 발자취냐며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내게 글을 선물한 상대가 오로지 신경을 쏘아부었을 그 당시를 헛되게 만들기 싫다. 글에 남겨진 모든 향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 그게 나에겐 편지를 받는 태도이고 일종의 감사 표현이다. 너무나도 감사한 힘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사람들은 사진과 영상이 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환영조차 없는 편지를 사랑하는 것은 함축이 좋아서, 설레는 기분이 나의 시선을 이끌고, 호기심으로 시작을 열며, 감정을 자극하고, 시간이 흘러 변화한 모습으로 내게 되찾아오는 그 과정이 마치 씨앗이 예쁜 꽃으로 피어나듯,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자라나듯, 예쁘고도 아름다운 이 함축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그렇게 이유를 확신할 수 있다. 그저 짧은 글일 뿐이니 대수가 아니라, 그저 짧은 글임에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참 좋다는 걸 말하고 싶다. 추억이 영원하게 남더라도 언제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재밌기도 하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왜곡이 모순처럼 다가와도 이것이 편지의 한 과정이라면 조금은 괜찮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다. 슬픈 추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보다는, 때론 행복하게 기억

속 오류가 약간 나는 것이 나쁘게 들려도 마음에는 좋다. 어쩌면 당신도 겪고 있을지도?

누군가에게는 사랑과 애정을, 누군가에게는 행복과 기쁨을, 누군가에게는 슬픔과 애도를, 혹은 누군가에게 분노와 울분을 전했을 당신의 글이 어찌나 큰 힘을 지녔는지 알겠나요? 편지가 관계를 만든다. 이것으로 사랑이 피어나고, 슬픔에 잠식되고, 분노가 표출된다. 당신이 담은 편지의 내용이 받는 사람에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고 싶다.

“당신은 편지가 지닌 힘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그 답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